

제주녹색당 제 5기 26차 정기운영위원회

*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19:00

* 장 소 :

* 운영위원 : 김순애 김 선 이진아 정화빈 신현정 반영경 고은영, 안재홍 현성미 진수은 (참관: 한은정)

1. 당원 및 조직 현황

1) 당원 현황

- 2020년)
- 입탈당 현황

구분	탈당수	입당수	특이사항(입탈당 사유 등)
탈당사유		입당사유	

2) 조직현황 및 활동 보고<별첨자료 2. p.9 참조>

- 10/25, 11/8(중) 정책위 회의
- 10/29 조직팀 의제모임
- 10/29, 11/9 청년녹색당 녹색정치 공부모임
- 10/30 논평팀 의제 모임
- 10/31 담쟁이 페미올레 의제 모임
- 11/2 선거토론 기획 회의
- 11/8 녹녹한 책임기 의제 모임
- 10/22, 10/28, 11/15 제주 미래리포트팀 회의
- 원희룡 퇴진 특위 활동 종료하기로 결정: 모임 지기인 용운님이 세월호 투쟁에 집중하면서 내부 동력이 떨어진 상태이고 외부적으로도 원희룡 퇴진 투쟁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려 민중연대, 다른 진보정당 등에 투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도했으나 동력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음.

3) 전국위원회 회의 보고:

- 시간 : 2020-10-25 오후 1시
- 장소 : 대전 원도심레츠
- 성원 : 25명(참석 21명/불참 4명/참관 5명)
- 회의진행 : 성미선 전국운영위원장
- 기록 : 정유현 조직팀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회순 변경=> 논의안건 1, 2, 4, 3, 5번 순으로 진행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 논의안건1. 경기녹색당 2018년 공보물 비용 미상환액 처리의 건

원안에 대한 표결: 찬성(17명) /반대(2명) /기권(2명)

=>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

반대의견 : 현재 상환할 금액의 50%를 일정 기간을 두고 상환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주 정화빈)

■ 논의안건2. 당헌개정에 따른 당규개정에 관한 건

원안에 대한 표결=> 전원합의로 승인한다.

=> 구성원은 광주 이소영(추천: 울산 남교용), 청년 김혜미(추천: 서울마포 정강수), 서울 박제민(추천: 청년 김혜미)으로 구성하는 것을 승인한다.

■ 논의안건4. 당내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수정안 제출 (충남 이재혁)

1. 구성 : 전국위원회 산하에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인원 : 원안과 동일
3. 역할 : 원안과 동일
4. 목표 :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국위원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전국위에서 판단한다.
5. 활동기간 : 원안과 동일

* 자세한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방식에 대한 논의는 선거일정에 맞춰 구성된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전국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 찬성(18명)/ 반대(1명)

=>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

=> 위원은 대전 오현화, 서울 현영애로 승인하되, 나머지 구성원 1인 추천을 위임한다.

■ 논의안건3. 전남녹색당 사무처장에 관한 건

=> 제87차 전국위원회의 후, 일주일 간 전남녹색당 및 당사자와 해당사건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진행한 후 관련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일주일 후, 온라인상 전남녹색당 사무처장의 신고된 게시글이 평등문화약속문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해 전국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전원합의)

추가 의견 : 당직자 포함 전국위원회도 자체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청년 김혜미)

■ 논의안건5. 혁신안 논의의 건

=> 지역당별로 제안된 혁신안을 나누어 토론하고, 2020년 11월 8일(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1차 토론을 이어가기로 한다. (전원합의)

지역당별 논의 내용	전운위 전체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당활성화 : 충남, 광주, 대전, 전북, 울산- 조직개편혁신안 : 서울, 인천, 경남- 재정전략 : 제주, 충북, 경기- 정치전략 : 경북, 청년, 대구, 청소년- 당 기구 역량강화 혁신안 :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혁신안- 성비위, 성폭력 등의 행위 처벌에 대한 당규 개정 제안

■ 현장발의안건1. 당헌개정의 건 (서울 박제민)

=> 서울녹색당이 제출한 현장발의 안건을 철회하고,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제출한다.

■ 현장발의안건2. 제8차 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전국 성미선)

=> 8차 대의원대회는 2021년 3월로 순연한다. 기존에 추첨으로 선출된 8차 대의원은 그 직을 유지

=> 2020년 12월 말까지 올해 사업 결산 및 보고 내용을 정리하여 전당원에게 공지한다.

■ 현장발의안건3. 기존당규와 개정당규 충돌의 건

수정안 제출 (청년 김혜미)

<p>기존 당규 5. 선거관리규정 제22조(후보자 등록)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후보등록을 받을 수 있다.</p>	<p>개정 당규 5. 선거관리규정 제22조(후보자 등록)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후보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당규 제35조 4항은 예외로 적용한다.</p>
--	---

> 전원합의로 승인한다.

■ 차기 전국위원회 일정=> 11월 22일(일) 오후 1시, 대전에서 개최한다.

임시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시간 : 2020-11-03 오후 8시

■ 장소 : 온라인(구글 미트)

■ 성원 : 25명(참석 17명/불참 8명/참관 9명)

■ 회의진행 : 성미선 전국운영위원장

■ 기록 : 정유현 조직팀장

■ 논의안건 1. 당무위원 선출을 위한 당규개정 수정의 건

주문사항 : 아래의 당규개정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수정안 제출(제안자: 서울 박제민, 서울마포 정강수)

현행	개정안
<p>5. 선거관리규정 제 16조(선거구) ② 당직 중 공동운영위원장은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제35조(선출방법) ④ 당무위원은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하여 4인 이상 8인 이하를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4인 미만일 경우 입후보 공고를 연장한다. 제59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p>	<p>5. 선거관리규정 제 16조(선거구) ② 당직 중 공동대표와 당무위원은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제35조(선출방법) ④ 당무위원은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여성 4인 미만 또는 총 8인 미만일 경우, 입후보 공고를 최대 2회까지 연장한다. 2회 연장 후에도 입후보한 후보자가 8인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를 진행하고, 총수에 미달한 당선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59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p>

수정안에 대한 표결

찬성(13명)/반대(0명)/기권(3명)=>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

논의안건 2. 당무위원 후보자 등록 추천인 수에 대한 선관위에서 재논의 요청의 건

주문사항 : 선관위에 당무위원 후보자 등록 추천인 수에 대한 전국위원회의 안과 혁신위원회 안을 설명문을 붙여 다시 한 번 결정해 주실 것에 대해 요청드리는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원안에 대한 표결: 찬성(14명)/반대(2명)/기권(1명)

반대의견 : 녹색당의 당내 기구의 결정에 대해 존중해야합니다. (제주 정화빈)

=>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

=> 전국위원회가 아래의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함.

1. 혁신안 : 10명 추천
2. 기존안 (등록방법) : 5개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5명 이상의 선거권자(직전 6개월 이내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를 포함한 선거권자 2%의 추천을 받아 등록(후보자 추천은 중복 가능)
3. 절충안 : 5개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5명 이상의 선거권자(직전 6개월 이내 4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를 포함한 선거권자 1%의 추천을 받아 등록(후보자 추천은 중복 가능)

제안 안에 대한 표결

찬성(11명)/반대(1명)/기권(5명)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인 수는 당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위의 의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사항일 뿐입니다.

논의안건 3. 당무위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후보자 등록 서류에 대한 추가 설명의 건

주문사항 : 지난 10월 15일 전국위원회에서 논의한 당무위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후보자 등록 서류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그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없이 결과만 공지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당원님들께 좀더 세심하게 설명하고 제안하게 된 배경을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 11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임시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안건3에 대해 재논의한다.

임시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시간 : 2020-11-08 오후 4시

■ 장소 : 온라인(구글 미트)

■ 성원 : 25명(참석 16명/불참 9명/참관 5명)

■ 회의진행 : 성미선 전국운영위원장

■ 기록 : 김소라/정유현 조직팀장

■ 논의안건 1. 제6기 공동대표 및 제1기 당무위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후보자 신청 양식 중 '상별위원회 관련' 서류 설명의 건

수정안 제출(제안자: 서울마포 정강수)

현행	개정안
<p>당규 제22조2항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와 상별위 징계여부, 상별 위 결정사항 이행여부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당규 제22조2항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설명: 당규 재개정은 지난 당규 개정에 대해 제기되었던 현재 상별위의 부재,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선거와 관련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개정된 당규 제22조 2항을 개정된 당규로 재개정합니다. 다만 이 재개정이 당규 개정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 제기된 녹색당의 후보자 검증에 대한 당원과 시민사회의 열망을 전국위는 무겁게 인지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상별위 내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진실로 녹색당 당직 후보에 적합한 후보자 검증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p> <p>수정안에 대한 표결: 찬성(11명)/ 반대(4명)/ 기권(1명)</p> <p>*추가 의견</p> <p>(찬성) 해당내용의 취지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후보자자격심사시, 부문별 위원회별 질의서 발송, 심도 있는 토론 등으로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이후 상별위 당규 등을 통해 당원자격 내용을 논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김혜미)</p> <p>(반대) 전국위원회에서 책임있는 결정에 대한 위원장님들의 정치적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내용은 상별위의 내용이 아니라 선거를 준비하고 당규를 만드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단위가 전국위원회임을 상기하며 책임있는 이후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전국 성미선)</p> <p>=>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p>	

2. 주요사업 및 연대활동

1) 지난 주요사업

- 11/7 제주녹색당의 날 행사(이달의 당원 시상, 세월호 쟁점 짚어보기, 혁신위 활동 나눔)
- 11/12 제주해상풍력 전문토론회(제주녹색당 정책위원회)

2) 연대활동

- 10/20 학생인권조례피케팅(도의회 앞)
- 10/20 민중연대 진보정치기획단 회의
- 10/21 제2공항강행저지 도민여론수렴 축구 기자회견
- 10/22 제주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회의
- 10/22 제주탈핵도민행동 회의
- 10/23 제2공항 강행저지 선전전(피케팅)
- 10/26 민중연대 대표자회의
- 10/30 도청 캐노피 사건 공판
- 11/2 제주 학생인권조례 축구 서명전
- 11/2 차별금지법 제정 축구 피케팅
- 11/2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대표자회의
- 11/3 민중연대 집중선전전

- 11/2~3 제주학생인권조례 서명 촉구 전단지 부착
- 11/5 송악산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공동 기자회견
- 11/5~6 청와대 세월호 농성장, 세종시 농성장 연대 방문
- 11/9 제주 학생인권조례 촉구 서명전
- 1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피케팅
- 11/10 민중연대 집중선전전
- 11/11 제2공항강행저지 골목골목 선전전(조천읍)
- 11/14 제주민중대회

3) 논평/보도자료

- 10월 21일 원희룡지사는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라!
- 11월 10일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논평

3. 회계보고(별첨자료1 참조): p.9

4. 논의 안건

안건 1: 굴판매 사업 추진 여부 검토(제안자: 사무처)

- 2020년 총회 당시 후원 사업으로 7백만원 수입 예상(2백: 굴판매사업 5백: 후원 주점) 현재 9백만원 정도 수입(개인후원 2월 후원주점 등)
- 박미영당원이 올해 굴 풍년이라고 제녹당차원의 굴판매 재정 사업 없는지 문의

안건 2: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제주 모임 의제모임 승인(정화빈)

<p>기후정의 특별위원회 제주지역 모임 1차 모임(가칭 기후정의 떡갈나무 모임 *기정떡*)</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일시 - 2020년 11월 7일(토) 19:00~20:002. 장소 - 오태식해바라기치킨 도남점3. 참석자 - 정화빈, 진수은, 김 철, 고은영4. 내용: 의제모임 제안, 제주녹색당 내 기후정의 중심 활동 필요성 논의, 의제모임화 추진 (김철, 정화빈, 진수은 3인 활동 동의)<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활동 기조 : 7인의 활동가 조직, 지역 내 기후위기 스포츠 투어,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사업의 제주 이행, 각종 액션 실행 및 당원 조직화- 의제모임 임시 지기: 정화빈 전원 동의- 11월 기후 액션 논의: 기후위기 비상행동 22일 동네방네 액션 기획 및 집행 합의5. 운영위 주문사항: 11월 운영위 시 의제모임 승인 <p>기정떡 2차 모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일시 : 11월 14일 12시2. 장소 : 온라인3. 참석자 : 진수은, 김철, 정화빈4. 내용:: 2인의 인선안 (신현정, 반영경) - 만장 일치로 통과 : 11월21일 기후행동 기획 - 21일 기후토론회행사와 맞추어 기획 (중)
--

안건 3: 2021년 총회준비위원회 12월 전환의 건(고은영)

- 취지: 매년 1월 경부터 운영위원회를 총준위로 전환하여 사업 평가, 총회 준비를 했으나. 1개월 앞당겨 최근 혁신된 전국당 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한 해 당 운영을 당원들과 깊게 고민 필요
(변경할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2021년 총회 시 규정 변경으로 승인되어야)

- 추가 의견: 11월에 디테일한 논의까지 해야한다면. 총준위는 3개 TF 중심 활동 제안.
 - ① 제녹당 의사결정/조직 체계 검토를 위한 TF
 - ② 당원의 날에 선거 준비의 긴급성을 말하는 다수 당원들을 확인한 바, 2022년 선거 준비 TF (아맹이나 토론회 기록 자료 활용)
 - ③ 2021 사업 평가 TF

안건 4: 녹색페인트 임대 종료 시기 제녹당이 녹색페인트 운영 담당 제안(정화빈)

- 1월 말 (신구간)에 계약 완료
- 1월부터 제주녹색당이 운영주체로 녹색페인트 운영 담당 제안
- 보증금 500 연세 500의 중 보증금 부분은 기존에 지불한 것이 있으니 보존
- 연세 500중 200~300정도 제주 녹색당에서 부담, 나머지를 단체(제주키퍼)나 개인(후원주점등)에게 도움
- 원래 녹색페인트는 모두가 주인인 형태로 운영하기로 하였지만 모든 공유공간들이 그러하듯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으면 몇 가지 문제 발생, 전담 관리자 필요(공과금, 청소, 등등)

● 제주 녹색당 재정 상태 공유

① 2020 제주녹색당 정기 당비 수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911838	1826273	1986544	1883596	1781821	1735141	1775454	1692634	1590090	1566090

② 2020 제주녹색당 월 고정 지출(대략)

사무처 인건비(2인)	130만원
웹자보, 카드뉴스 제작	10만원
운영위원장 활동비(1인당 10만원)	10만원
연대사업비 대략	10만원
퇴직적립금	10만원
의제모임 지원	10~20만원
정책개발비	10~30만원
당원활동지원	10만원~30만원
합계	200만원~240만원

*제주녹색당 운영시스템 변경시(운영위원장 직선제 도입) 운영위원장 활동비 인상 필요

<별첨자료 1> <2020년 10월 결산>

수입	이월금	10,389,610
	정기당비	1,566,090
	특별당비	
	후원금(개인 및 기타-정책팀 지원비환급)	200,000
	그밖의 수입(캐시백, 이자 등)	1,155
	총수입	12,156,855

지출	인건비	인건비	사무국(2인)	1,200,000
			회계	100,000
	소계			1,300,000
	사무실설치운영비	공과금 및 유지비		5250
		물품 구입비		
	소계			5,250
	정책개발비	정책위지원	토론회 등	100,000
			정책위모임	100,000
		연대사업비	분담금(민중연대, 차별연대)	250,000
		정책홍보비		
	소계			450,000
	조직활동비	의제/지역모임 및 기타 회의비	독서/지역모임	180,000
			기타 회의비	89,000
		회원사업비	대관료(당원의날)	50,000
		교육/행사 사업비	추석/도민회의선전전	303,600
		문자전송	문자전송쿠폰	77,000
		여비		
		위원장활동비	정화빈	100,000
		홍보물 편집비	박진호	100,000
		기타(잡비)	문자알림	300
소계			899,900	
적립금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107,900	
예비비	예비비	조의금	50,000	

총지출	2,813,050
잔액	9,343,805
퇴직금 총적립액	1,229,100

<별첨자료 2 의제모임>

모임이름	정책위원회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6명 (당원)
만난 때	2020. 10. 25.(일) 10:00		만난 곳	민주노총 제주본부
만난 이틀	당원	안재홍, 노민규, 반영경, 이희준, 이선자, 김순애(사무처) 불참: 엄문희, 김철(육지)		
기록	김순애	지원 / 참관	김순애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논의사항> 서로 정리한 주제별 내용 공유</p> <p>1. 농업 농정과 이름이 친환경농업정책과 하지만 친환경 농업 0.4% 우리나라 농정 방향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구성되지 않음 친환경 관련 조례는 두 가지에 불과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부족 유기농 판로가 없음/ 유통에서 가장 큰 것이 농협인데 농협은 아예 친환경 유통을 취급하지 않음/농협내에서도 형식적 코너 취급/상품성 기준 자체가 달라서 아예 취급하지 않음 과거에는 저농약 기준이 있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농약기준이 없어지면서 친환경 농가가 줄어듬 -제주도정의 친환경 정책의 문제점: 관에서는 친환경농정을 주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신뢰가 없음. 한참 친환경농업이 유행했지만 경험해보니 어려움을 경험해봐서 (생산과 유통, 시장에서의 반응 등/육지는 벼농사가 친환경 농법이 쉬워서 그나마 친환경 비율이 있지만 과수농의 경우 친환경 역사가 길지 않음) 그래서 더더욱 지원 필요, 모험을 개개인에게 맡기고 있음 유럽의 경관보조직불제의 경우 친환경관련 규정이 있다. 제주도 관광지이기도 하니까 친환경기준을 정하고 직불제 등을 시도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 소비조사해보면 건강에 좋기에 소비한다. 유럽 소비는 환경이 소비 기준이 됨 지금 시류에 맞으려면 직불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고 로컬푸드 정책 도시 소비와 농업을 연결하려는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부분 등 -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 로컬 기준이지 않을까 - 농가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최저가격보장제 기본소득 등 - 굴정책을 기본소득 - 축산을 내버려 두고 농업을 굴+특화작물: 제주농업 현실에 맞는 정책을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 찾아야하지 않을까? - 굴정책 보고 이후 발작물로 가자 1~2월 전까지 자료정리를 더하자 - 친환경농업육성->친환경농가 소득보장->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굴이 가장 큰 소득 비중 이기에 굴 현황을 제대로 보고면 자료 보강</p> <p>2. 에너지 - 토론회 관련 일정 공유 - 제녹당 안에서 당원들 사이에 논란도 있고 하니 토론회 등으로 내용 공유하고 필요하면</p>			

당원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운영위 제안

- 그린뉴딜 토론회는 큰 논쟁이 되지 않겠지만 해상풍력 토론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
- 해양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
- 해상풍력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냐라는 주장이 있지만 과연 맞는가?
- 대규모 수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시스템, 대형발전 등 지금 신재생에너지 계획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
- 국민의 힘에서 말한 논리: 현재 정부가 하려는 에너지 정책은 바다를 해상풍력발전으로 돌려야 한다
-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과 풍력이 다르지 않은 부분은
- 전력을 늘려가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다. 군사기지 등을 염두에 두고 전력을 늘려가는 것은 아닌가?
- LNG 복합 발전 등이 도민을 위한 것인가?
- 그린 디지털 강화
- 주민수용성이 주민들의 참여, 공평화 정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짚어줘야 하지 않을까?
- 공평 관련 토론자로 넣고
- 11월에 토론회 2회 후 정책위에서 논의

3. 여성

- 제주 성평등 조례 공유
- 제주도의회 여성의원들 /제주도산하 여성정책관/도의회 제주여성포럼
- 여성경제 참여율 가장 높지만 임금격차,
- 임금격차/4급 이상 고위직 여성 비율 및 위원회 여성 비율/이장 비율 파악
- /성평등규약

4. 해양

- 해양생태계 관련 조례는 없다
- 스마트물류 항만을 끼워 넣어서
- 공유수면매립 관련 조례, 연안관리조례 등이 해안주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역할을 하지 못함, 따져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없음
- 해양감시,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다루는 조례가 없고 경제 성장 중심의 조례만 있음
- 시간 여유가 있으니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포인트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후 장훈교님 커먼즈 강의

- 희준: 제녹당 지선 공약이 기본소득 중심, 기본소득론 자체만 가지고 전환을 이야기하기에는 더 포괄적인 비전 필요하지 않을까?
- 제녹당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의 상호성을 정책팀에서 공유할 필요성
- 공동자원체계 commons 1990년 이후 등장
- one city plan(브리스톨) OneNyc(뉴욕) 하와이2050 제주미래비전
- 제주: 정체성의 위기(토착성, 경관성 등)-제주다움
- 공통된 것은 낙후한 인프라시설(인프라스트럭처)를 새롭게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 전환계획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 척도를 가지고 진행
- 2050은 전환에 필요한 기간이 30년 정도 소요한다, 다수가 생각하는 최후의 한계 2050
- 이행시나리오: 제주전환의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뉴딜 정책은 기업형, 기업 중심 - 제주의 1인 연 의료비 70-80만원 앞으로 더 증가될 것 - 1인 가구 증가-젠더화(60대 이상의 경우 여성), 고령화, 청년부재(적정인구가 얼마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데이터 확보 등)->전환, 교육 등의 문제에서 중첩되어 있음 - 기반시설 한계와 설계를 둘러싼 갈등-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 - 현재 민주주의는 정치적 위임, 전문가 위임(정치가와 전문가가 만나서 결정) - 산업전환과 시민생활 안전 및 발전의 관계 악화 - 군사기지화 개발체제 악화 도시화 불균형발전 - 다양성의 조정과 교류의 새로운 행태 창안 - 민주주의 심화기반 부재, 대항 공중 counter publics의 형성 한계, 구체적인 동력 확보의 어려움, 시민사회 리더십 고령화, 시민동원문제, 반개발 동맹은 1990년 체제, 향후 지속되어지는 갈등의 대항 공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제주에서 선주민에게서 빈곤문제가 제시되지 않는 이유는? - 기후위기 환경재앙 장기비상시대 대응 능력 - 지속가능성-장기비상시대 적응, 지속가능성 이행의 과제 결합 - 섬이라는 지리적 정체성(괌에서 '섬 지속가능성'이라는 언어 나눔) - 섬의/에 대한 권리(제주다움이라는 용어 대신 제주를 정치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언어 찾기) - 유사공동자원체계 사고 등장 - 제주형 공유자원 활용시스템/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제주자연공동자원을 통한 시민배당/관광이익 개발이익 도민배당/풍력자원공유화/읍면동마을기금조성/꽃자왈신탁운동/도로총량제/제주공공재산을 활용한 도민주도 성장/제주공동물류제한:물류공동화/우수자연환경자원의 공유화/지역공동체 참여형 자연자원관리 체계/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 한계를 두고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은 공동자원체계와 유사 - 소유의 권리, 파괴의 권리-공동성의 구속하에 소유를 묶어두는 것.. - 커먼즈는 인간의 이용 관점이 들어있음, 오아시스는 공동자원이기도 하지만 공동자원체계는 아니다. 그 이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접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특정한 형태의 관리 체계가 존재할 때 커먼즈라고 볼 수 있음 - 공동자원체계에 관한 공화국의 제한/커먼즈는 근접성의 원리 중요 <p>공공공동자원체계 public-commons/확장의 한계-공동조정 형태로 운영</p> <p>제주의 퍼블릭 영역이 거대/노동전환, public이 고용의 최대 보호자가 되어야, 개입의 형태가 보장되어야/노동의 평범화-기술과 연관되어 있다</p> <p>2030년 전후로 중요한 변화/ 약한 인공지능이 보편화, 범용기술</p> <p>시민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쓰레기는 모두 같이 치워야 한다</p> <p>실질적 기여의 조직과 분배</p> <p>시간의 정치적 재화</p> <p>시간빈곤, 시간과 돈의 구조적 연결 이탈리아 페미니스트들의 도시시간 조정운동</p> <p>공동자원협력시간</p> <p>*경제와 비핵/평화 등은 다음 zoom회의에서 논의하자</p>
<p>다음 모임</p>	<p>- 다음 회의는 11월7일(토) 오후 9 줌</p>

모임이름	정책위원회		참석인원	6명 (당원)
만남 때	2020. 11. 8.(일) 21:00		만남 곳	ZOOM 회의
만남 이틀	당원	안재홍, 반영경, 김 철, 이희준, 이선자, 노민규, 김순애(사무처) / 불참: 엄문희		
기록	김순애	지원 / 참관	김순애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논의사항></p> <p>1. 지난 장훈교 박사와의 토크 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땠을까? - 비전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 정책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중심의 논의가 되지 않아서 아쉬움 <p>2. 경제 부분 발표(이희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소득제를 넘는 개념 제시 필요, 사회적대출권, 기본자산론, 생애주기 기본소득론 등 - 우리가 가진 기본소득론을 더 고도화할 것인가? - 혹은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비전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커먼즈 개념 바탕으로) - 정책위에서는 조례관련해서 고도화하기로 했으니 경제관련 조례들을 찾아서 정리 - 개발이익 환수 공약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기준 고민 다시 되어야 지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는가? - 제주도의 공유재산 약 21조 전체토지의 8.26% 토지면적 꾸준히 증가/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가능성 /교육청 재산 포함여부 등 이후 알아볼 것-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예산 불용액이 매년 60~70% - 공유자산 관련한 공약은 커먼즈 관점에서 접근하여 더 구체화시킬 가능성 존재 - 18년 공약 중 '풍력단지 20년간 운영 종료 이후 공공환수, 주민주도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내용->풍력 수명이 20년인데 실효성이 있을까? - 가시리 마을 사례 조사 필요: 가시리 모형의 유효성 -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약: 지방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 등에 더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세부 계획을 다듬어야/현실가능성 등 이야기 하면서 추후 제녹당 지선 공약으로 넣을지 고민 <p>다음 지선에 부동산 공약이 큰 이슈가 될 것 논의할 지점들이 좀더 많다. 다음에 더 논의해야</p> <p>3. 추후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철: 수요일까지 자료 올릴 것 - 문희님과 통화해서 언제 자료 올릴 것인지 확인 - 에너지 토론회: 오프라인 토론회보다 유튜브 방송으로 전달/ 발표 사회까지 포함 8명: 정책위는 1차 토론에 안재홍 2차 토론에 비가림 토론자로 참여 - 12일 토론회는 송동효님이 라이브 촬영, 김철+김순애 진행보조 - 20일 토론회는 이희준, 안재홍이 진행 보조 - 보도자료 메일 발송(순애) - 해상풍력: 제주에서 해상풍력을 만들어도 전력화되지 못하는 부분과 주민수용성, 해양생태계 파괴 부분에 대해 다루겠지만 반대측이 나오지 않아서 쟁점 토론이 되지 못할 가능성 			
	다음 모임	11월22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줍)		

모임이름	페미올레 담쟁이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5(당원3)
만난 때	2020.10.31.	만난 곳	부산 해운대
만난 이들	당원	최희정, 양인숙, 이은정	
	비당원	김서영, 최신자	
이끈 이(지기)	최희정	지원 /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 황령산 둘레길 걷기</p> <p>출발 : 금련산 수련원 입구 13시</p> <p>부산의 남천동 대연동 문현동으로 이어진 황령산의 둘레길 중 백미라 할 수 있는 편백나무숲길과 바람고개까지 느리게 걷기, 편백 숲 평상에 앉아 김밥도 먹고 힘든 시기에 이 숲길에서 한숨과 눈물을 뿌렸던 삶의 이야기도 공유.</p> <p>도착 : 둘레길 왕복 후 금련산 수련원 주차장 도착 15시</p>		
	<p>☆ 독서토론</p> <p>숙소 해운대 마리안느 호텔, 10월의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p> <p>* 책 선정 이유 :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바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사회역학이라는 낯선 학문에 대해 궁금하다. 「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에 이어 차별과 혐오, 고용차별, 사회적 고립 등은 어떻게 질병과 맞닿아 있는지 알고 싶다.</p> <p>* 밑줄 긋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되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은 참사는 반복된다. - 해고는 살인이다. 재난이 6년 동안 지속되는 와중에 국가는 해고자와 가족에게 어떤 안전망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노동자와 가족 28명의 죽음이라는 사태를 맞았다. - 희망은 항상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다. -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해줄 것이라는 확신은 기꺼이 힘겨운 삶을 꾸려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p>-아름다운 사회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좌절에 함께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p> <p>* 감상이나 비평, 생각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에 다니면서 항상 환자들만 약자라 생각해왔는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사들’편을 읽고 전공의들의 심각한 노동 강도로 인해 의료사고가 빈번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의료도 돈의 논리에 좌우되니 제주 영리병원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의료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 건강과 질병이 사회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사회적 약자들이 질병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서 좋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이 		

왜 규명되지 못하는지 너무 답답하다. 그 동안 AIDS에 대한 편견과 공포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보건학적 무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많이 반성했다. 사람들에게 대한 저자의 따뜻한 시선이 좋았다.

- 술술 읽혔다. 운 좋게도 내가 건강한 덕분에 약하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공감 이 부족했고 결국 개인의 탓이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건강 역시 특정 계급들만의 권리이며, 시카고 폭염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재해나 재난과 질병, 죽음마저도 불평등하다는 걸 알았다.

- 트라우마를 초래한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 고통을 낳은 사회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자신이 겪은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때 트라우마가 더 심해진다는 사실에 세월호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비난이 생각나서 가슴이 많이 아팠다.

- 개인의 탓으로 돌렸던 질병과 통증들이 사실은 차별이나 불평등, 폭력 등 사회구조가 원인이라고 실험과 통계로 조목조목 알려주는 김승섭 저자는 외롭고 힘든 이 시대의 아픈 사람들(쌍용자동차 해고자,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성소수자) 옆에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이 사회의 치유 가능성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준다.

- 공동체가 항상 해법이다. 이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을 때 질병을 이길 면역력이 생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는 암세포가 퍼져가는 몸이다.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



다음 모임은	11월 28일(마지막 토요일), 11월의 책 「새벽 세시의 몸들에게」(김영옥 외)
적은 이	양인숙(총무)

모임이름	제주 녹색당 조직팀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4(당원)
만남 때	10월 29일 17:30		만남 곳	도청앞 천막당사
만남 이틀	당원	김영란, 김 선, 부순정, 현성미		
	비당원			
이끈 이(지기)		지원 /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당원의날 준비에 관한 논의</p> <p>1. 행사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11월7일오후2시 - 장소:걸어서 4층 대여 시간 1시~6시 5만원(시간당1만원), 빔프로젝터 사용 가능 <p>2. 당원의날 준비 역할 분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김영란 - 베이비시터:김선 - 폐북라이브:현성미(당일 참석가능하다면) - 제주 녹색당 활동영상 제작:현성미가 만들어서김 영란에게 전달 - 이달의 당원 선물, 투표용지,평가서,음료와간식,플래카드:한보스 - 사회: 부순정 <p>3. 당원의 날 진행 순서(총 3시간 예상: 오후2시~오후5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녹색당 활동 영상 2) 혁신위활동 보고: 1시간30분(질의 응답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제: 신현정(약30분) -질의응답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쉬는 시간(10분) 4) 이달의 당원 시상(10분) 5) 세월호가 아픈 당원들의 이야기(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황 공유: 고은영(30분) -이에 대한 당원들 의견 나누기 -현재 제주녹색당이 연대할 수 있는 일정해서 실천하기 <p>#이달의 당원 선정 방법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원의 날에 참석한 신입당원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기 어려울 것 같다 - 사전에 구글폼으로 이달의 당원 설문을 받아서 당원의 날에는 시상만 하도록 변경 - 구글폼 작성:김영란 <p>#조직팀 운영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으로 조직팀 활동을 할 수 있는 멤버 충원이 필요함 - 조직팀원들이 멤버 영입을 위해 노력하자 -조직팀 홍보 영상 제작(현성미)하고 이를 활용하여 당원의 날 및 제주녹색당홈페이지/단톡방에 모집 광고 			
	다음 모임은			
적은 이	김영란			

모임이름	제주미래리포트TF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6(당원6)
만난 때	2020.10.22	만난 곳	제주녹색페인트
만난 이들	당원	고은영, 김 철, 반영경, 한은정, 김영란	
	비당원	-	
이끈 이(지기)	고은영	참관	이희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1. 논의 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를 쓰는 제주녹색당의 ‘시선’, ‘관점’에 대한 토론 : 에코페미니즘, 기후정의, 제주 reweaving에 대한 이야기 - 제주대학교 서영표 교수 논문에서 제시된 4개 관점에 대한 토론 : 정체성 인정, 민주적 참여, 생태적 공존, 삶의 질 향상 : 본 보고서 2부 정의로운 전환을 풀어나가는 관점으로서 적합한가? - 정의로운 전환 파트 자율 토론 :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담론 등에 대해 다층적 이야기 <p>2. 정리되지 않은 쟁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행정을 중심으로 한 제주 reweaving은 “과잉 행정” 기반이 아닌가? - 민주적 참여의 경험이 중요한데, 우리의 작업 또한 당원들에게 민주적 참여 기회를 나눠야. (HOW에 대한 결정은 보고서 퀄리티에 따라 판단하여 진행 예정) <p>3. 결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에서 제시된 4개 관점으로 제주를 reweaving하자. - 정의로운 전환 파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 준비해서 추가 미팅하자. : 뉴질랜드 웰빙버킷, 아이슬란드 지표, 국회미래연구원 대한민국 행복지수 살 펴보기 <p>4. 팀원들의 모임 소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룩 철: 토론이 도움이 되며, 정의로운 전환을 말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보다 시스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쓰 은정: 1차 토론 후 쟁점을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담보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 꼬달 은영: 담론은 계속된 공부의 영역이며, 그 안목으로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훈련을 해야. 오늘처럼. 우리 자원을 인식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을 꾸준히 했으면. 		
다음 모임은	10월 28일(수) 녹색페인트		
적은 이	고은영(팀장)		

모임이름	제주미래리포트TF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4(당원4)
만난 때	2020.10.28	만난 곳	제주녹색페인트
만난 이들	당원	고은영, 반영경, 한은정, 김영란	
	비당원	-	
이끈 이(지기)	고은영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1. 논의 안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로운 전환 파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 : (김영란 준비) 뉴질랜드 웰빙버짓, 아이슬란드 지표, 국회미래연구원 대한민국 행복지수 살펴보기 : (반영경, 김영란 브리핑) 정책위원회에서 제주대 장훈교 박사 초청해 간담회 진행한 커먼즈에 대한 이야기 나눔 (쓰레기, 교통, 주거 등) - 4개 관점 중 정체성 인정에 대한 토론 : 4.3의 인정과 함께, 중앙이 아닌 섬으로서의 '제주' -> 섬들의 연대, 평화 이슈 풀어내기 - 분야 별 토론 : 커먼즈 관점의 주거/주택 : 섬의 생존 조건은 열악한데,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 자원이 없는 제주가 경제적 자립(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막막. <p>2. 정리되지 않은 쟁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적 차원에서 우리는 “대안적 쾌락”, 소비를 하는 인간으로서의 인식 :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에 대해 화두를 던진 루카스 플랜과 함께 사회적으로 유용한 소비적-문화적 주체로 거듭나는 대안적 쾌락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식해야 하지 않나. - 소비자와 시민을 분리하는 태도 배격해야 하지 않을까. - 제주에서 좋은 일이란? 자급자족 최대화를 어떻게? - 지방자치 비전을 다룰 때 기존 마을 자생단체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p>3. 결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로운 전환 파트 김 철-고은영이 뼈대 만들어 추가 토론 모임 		
다음 모임은	11월 15일(일) 제주녹색페인트		
적은 이	고은영(팀장)		

모임이름	논평팀 의제모임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3(당원3)
만난 때	2020.10.30	만난 곳	벤처마루 코워킹 플레이스
만난 이들	당원	순애 영경 비가림(불참: 멀치 상영)	
	비당원	-	
이끈 이(지기)	반영경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1. 지난 논평 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조례/제2공항/해상풍력/제주형뉴딜종합계획/영리병원 <p>2. 논평이 세련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녹색당에서 시의적절하게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는 것이 중요 큰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도록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의적절한가 -의견이 적절한가 -문구나 문체가 적절한가? 등을 검토 <p>3. 자유 의견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 이슈나 주장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면 좋겠다. - 예를 들어 환경 이슈에서 민주적 절차가 문제될 때, 혹은 절차적 민주성은 담보되지만 내용적 민주주의는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포인트로 글을 쓸 것인가 - 환경, 기후 위기가 맨 앞에 서야 한다. 문제를 나열하기 보다 환경, 기후 위기라는 일관적 맥락에서 비판 - 제2공항 역시 기후위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포인트로 잡고 하면 좋겠다. 탄소 배출 사업/항공사업/과도한 관광산업을 대책 없이 증대시키려 하는 것을 부각/생산자 부담/기업에 탄소세 부과 등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 - 불평등 기후위기: 제2공항건설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소득 분배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봐야 <p>뉴딜이라는 단어의 허구: 고용문제/전환 등의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빠진 선언에 불과, 구체적 계획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종합뉴딜의 수소차 정책에 대한 비판 필요 -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기초 재확인 및 공유 필요(정책위 토론회를 통해 정리) - 제2공항이 들어서면 일자리를 늘이겠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가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한시적 일자리/4대강 사례/강정해군기지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는 않았다. <p>일자리 창출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자꾸 부각시켜야</p>		
	다음 모임은		
적은 이	김순애(사무처)		

모임이름	청년녹색당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4
만남 때	10/29(목) 19:00~20:30	만남 곳	녹색포인트
만남 이틀	당원	정화빈, 정민영, 김주영, 신현정	
	비당원		
이끈이(지기)	신현정	지원 /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 읽기자료</p> <p><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안내메일 첨부파일 참조</p> <p>02. 그린뉴딜의 경제 논리</p> <p>04. '포용'이라는 포장으로는 감춰질 수 없는 불평등</p> <p>06. 탄소 배출 절반감축의 경제적 의미</p> <p>09. 그린뉴딜의 '핵심전략'은 무엇인가?</p> <p>15. 그린뉴딜의 하나의 염려, 제본스 역설?</p> <p>17. 노동자와 시민의 '정의로운 전환'</p> <p>22. 다시 경제로 - 그린뉴딜은 경제를 어떻게 살리나?</p> <p>채효정 칼럼: 그린뉴딜(참세상, 2020.04.16), 세상과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경향신문, 2020.06.16)</p> <p>최병두 칼럼: 한국형 뉴딜과 녹색전환의 논리(한겨레, 2020.05.31)</p> <p>■ 공통 질문</p> <p>1. 그린뉴딜을 정의해봅시다. 당신이 설명하는 그린뉴딜은 무엇인가요?</p> <p>2. [인터뷰]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2명 정도 인터뷰를 해봅시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 인터뷰 이후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새로운 이름을 제안해봅시다.</p> <p>■ 자료 읽은 소감 나누기</p> <p>- 지난 1주치의 유인물 녹색정치사상 11p에서 '녹색정치는 인간이 사회와 자연계를 가장 신중하게 다루는 것 이외의 그 무엇에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는 구절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린뉴딜은 생태주의자들에게 꽤나 많은 타협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인간으로서 지지 않기란 어렵기 때문에 사회성장에 대한 고민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GDP에 매달리는 것이 답일까 하면 회의적인 생각이 먼저 든다. GDP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의미를 갖는 지표, 그러니까 오로지 전체주의로 바라본 국가의 성장만을 대변하는 지표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 외에도 개개인과 공동체가 모여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급자족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이라거나)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이를 위해선 기존에 익숙해져있던 자본주의 안에서의 성장주의 신념에 대한 의심과 그 지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p> <p>-마침 10월 12일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되었다. 미국 녹색당 그린뉴딜의 네 가지 핵심 축은 ① 고용 권리, 노동권, 보건의료 권리(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연방정부가 재</p>		

	정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무상교육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권리 장전, ② 소기업·녹색 연구·녹색 일자리에 대한 투자 지원과 녹색 전환, ③ 자가 주택 소유자와 학생 부채 탕감·통화정책의 민주화·금융기업의 해체·정부의 은행 구제금융 중단·금융 파생상품 규제 등 금융 개혁, ④ 기업의 법인격 폐지·투표자 권리장전 통합·애국자법 폐지·국방 예산의 50% 감축 등을 통한 민주주의의 기능 회복. 군축과 제주형 뉴딜에 관해 고민 중. 좀 더 다듬어서 다음 주 칼럼으로 써 보겠다.
다음 모임은	[비거니즘~페미니즘~생태주의]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 p.364 에코페미니즘 초기의 개념 - p.387 채식주의 에코페미니즘 <육식의 성정치> - 10주년 기념 서문 - 2장(동물의 성폭행, 여성 도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 1장 페미니즘이란? '착취 혹은 억압/종속?'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적은 이	신현정

모임이름	청년녹색당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4
만난 때	11/9(월) 19:00~21:00	만난 곳	녹색포인트
만난 이들	당원	정화빈, 정민영, 김주영, 신현정	
	비당원		
이끈이(지기)	신현정	지원 /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 읽기자료</p> <p><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 p.364 에코페미니즘 초기의 개념 - p.387 채식주의 에코페미니즘 <육식의 성정치> - 10주년 기념 서문 - 2장(동물의 성폭행, 여성 도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 1장 페미니즘이란? '착취 혹은 억압/종속?' '자본주의적 가부장제'</p> <p>■ 공통 질문</p> <p>1.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육식의 성정치>서문과 2장에서 모두 '부재 지시 대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부재 지시 대상'의 예시를 두 개만 들어봅시다.</p> <p>2. 어떤 점에서 여성과 동물에 대한 차별이 교차한다고 공감했나요? 공감할 수 없었다면, 어떤 점에서 동일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했나요?</p> <p>■ 자료 읽은 소감 나누기</p>		

	<p>-자료를 읽고 비건이 되기로 결심. 페스코로 시작했다. 아직까지 크게 불편한 점이 없어서 놀라기도 함. 육식이 습관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다.</p> <p>-비거니즘, 페미니즘 주제 모두 관심이 있었다. 육식의 성정치도 원래 많이 듣던 책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어려운 책이었다. 전문이 궁금해짐.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암컷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되는지에 대한 지점에 대해 페미니즘과 연결시키는 지점을 많이 들었다. 이런 연결들이 아직 명료화되지는 않았다.</p> <p>-평소 자연을 여체로 치환시키는 구호들. 난개발을 강간으로 비유하는 구호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음. 설악산과 어머니, 설문대할망의 품 같은 것들.</p> <p>-페미니즘은 권력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자료에서 직설적, 노골적으로 잘 던져졌음. 동물과 인간 사이의 권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남성과 비 남성의 관계와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연결되어서 권력이 비거니즘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동물권 단체나 비건 실천을 통해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없었다. 처음 접했으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음. 비인간존재를 대등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 구조라고 느낌. 생명을 가진 것에 관해 어려운 지점들. 한편으로는 크기와 비례하기도 함. 작은 벌레가 기어갔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죽였겠지만, 컸으면 그랬을까? 나는 어느 만큼 인지하고, 얼마나 변화와 행동을 시도하고 있나? (모든 생명은 동등할까? 바퀴만 봐도 때려잡게 됨.) 나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이 느껴진다.</p> <p>-여성을 소비하고, 해체하고, 지칭하는 방식과 동물이 그렇게 되는 방식들의 연관성. 신화/영화/문학 등의 사례. 한국에서 부재 지시 대상이라던지, ‘동물’이 ‘고기’가 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건들.</p> <p>-‘부재 지시 대상’에 관한 토론과 논의</p> <p>-제주여민회의 감귤초콜릿 이름 바꾸기 운동. 비바리초콜릿. 제주에서 ‘삼바리’ 라고 지칭하는 문화.</p> <p>-“고깃덩어리=여성”이라는 비유에 대한 비판적 고찰들에서 ‘너는 나다’라는 구호들이 떠오름. 한 현장을 다른 현장들에 비유하는 구호들도 떠오름. 차이점들이 사라지는, 동일시의 정치학은 아닐까? 차이를 긍정하고 그것들로 거대한 비약을 메꾸는 정치 필요</p> <p>-기타</p> <p>시간이 모자라 마무리하지 못한 공통질문 2번은 다음 모임에서 이어가기로 함.</p>
<p>다음 모임은</p>	<p>2020.11.18.(수) 18:00~21:00 [4주차 - 조직 혹은 활동: 일상의 재구성, 재조직]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5장: 의사소통 <비건 세상 만들기> - 2장, 3장</p>
<p>적은 이</p>	<p>신현정</p>

모임이름	녹녹한 책임기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7(5+2)
만난 때	10.18. 13:00		만난 곳	녹색페인트
만난 이들	당원	순애, 숲정이, 화빈, 누룩, 성미 비당원(여일쌤, 정일쌤)		
	비당원	여일, 정일		
이끈 이(지기)	누룩	지원 /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1. 인사</p> <p>2. 근황토크</p> <p>3. 독서모임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와 텍스트 선정</p> <p>4.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한 시에 진행</p> <p>“지방회생(야마시타 유스케)”</p> <p>1) 도쿄일극집중의 본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과 육아는 경제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이며 가족과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 - 행정과 시장에 의존하는 도시의 삶 <p>(삶의 과정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행정화,공공화,시장화)을 ‘생활의 사회화’라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화는...본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자기 재생산능력 감퇴시킴 -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젊은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 <- '직업권위의 서열화' 관점에서 설명 - 직업권위의 서열화 때문이다 -> 전국 총 도시와, 전 도쿄화에 따른 귀결 <= 일본의 정치행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 =>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다 - 문제는 무엇이든 도쿄로 몰려드는 이런 구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구조 어딘가에 과도한 것이 발생해 지나치게 수도로 몰려드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그 지나친 것인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는가이다. 즉,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왜? <p>2) 전후 일본의 저출산 흐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서 저출산대책은 표가 되지 않는다 - 인구 문제의 핵심은 저출산이지 고령화 현상이 아니다 (사실 차세대의 인구수만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고령사회는 오히려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를 극복하는 필연적 수단은 저출산을 막아내는 방법 밖에 없다) - 사실 현재의 정치제도는 시간 차이에 의한 비민주적인 제도다 - 저출산은 왜 멈추지 않을까 : 제3차 베이비붐의 부재는 2000년대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몇 개의 큰 흐름에 이끌려 순차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 정책실패로 인한 인구감소 사회 : 전국 총도시화 현상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중 			

요한 것이다 / 행정과 출산율이라는 양자의 관계가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겉으로
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들 간의 강한 관련성을 파악해 보다 빠르게
대응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구감소는
역시 정책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출산력이라는 인간의 매우 소
중한 능력을 행정,재무 개혁의 희생양으로 날려버린 것 같다

- 버블 붕괴와 국제 정세 : 우리는 웬지 모르게 인구 감소를 경제 문제라고 생각
한다. (그 근원에는 가치를 잘못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다. 마음과 사회
의 문제다. / 가족을 형성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사람이며 사
회다 / 정책 이념이 이미 '도시의 정의'에 완전히 중독되어 모든 것이 경제와 돈
의 효율성 추구에 의해 판단되어(...) /

3) 세대교체와 지방.중앙의 관계

- 생활양식의 변화와 저출산 :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일체가 되어 예상
치 못한 곳으로 굴러가는 악순환의 구조가 실제로 국가 안에 존재하며 작동하는
것이다

- 고령세대일수록 권위가 낮은 업무에 종사 : 즉 3세대를 거치며 권위 서열에 충
실히 따르고 자신의 생존을 국가와 시장에 맡기는 순수한 도시민이 형성되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관계도 변했다. 중요한 것은 '도쿄
로 향한다는 것'의 의미, 대도시 및 도쿄라는 장소의 의미가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권위서열과 도쿄일극집중 현상이 가져오는 효과가 세대마다 매우 다르다
는 것이다.

- 도시로 향한다는 것의 의미 변화 : 이렇게 단카이주니어 세대는 도시를 동경하
고 보다 높은 서열의 직업을 원했다. 그들에게는 단카이 세대처럼 스스로 일을 만
들고, 가족을 형성하고, 꿈을 실현하는 것이 더 이상 목표가 아니었다. 오히려 개
인으로서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대도시에 거주하길 희망했다. 그러
나 사실 자신의 생존을 정부와 시장의 방향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세대에게 이런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 사회에 필요한 일을 꺼리는 젊은이들 : 반세기에 걸쳐 확립된 권위서열로 인해
안정되었던 국민들의 직업 분담에 구멍이 발생했다. 사람들이 도시나 대도시로 이
동하면서 생활양식이 변하고 총도시화 및 전도쿄화가 진행되어 드디어 사회를 유
지하는 데 필요한 직업의 재배치를 방해하는 데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 국가에 의존하는 도시생활 : 기업이나 기관의 노동자 비율이 증가하고, 경영진
의 방침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며, 게다가 고용의 단기화 및 불안정화로 인해 자신
의 지위나 소속조차 확정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되었다.

제3장 도쿄에서 바라본 '지방창생'

1) 도쿄만 애쓰고 있다는 오해

- '도쿄가 번 돈을 지방으로 돌리는 것은 이상하다' :

- 정말 도시가 '생산'하고 있을까 : 생산하고 있는 것은 지방이다. 다만 그 본사가 대부분 도쿄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세금이 도쿄에만 모이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 관광수익도 중앙으로 모인다 : 관광개발은 확실히 경제를 윤택하게 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의 대부분은 콘텐츠를 개발한 사람이나 지방이 아닌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교통회사나 여행사 또는 관광인프라사업자 혹은 방송국 등 정보소프트 산업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광인프라 사업자의 대부분은 대도시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관광진흥을 일으켜도 그 별이의 대부분은 그러한 업자들에게 들어가는 구조 / 돈의 순환을 만드는 것. 세금 징수와 공공사업은 그러한 회로의 하나다. 지방이여벌어라가 아닌 전체 프로세스를 능숙하게 조정해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 농산물은 싸야 한다 : 농산물은 싼 이유는 도시 주민의 생활 때문이다 / 농산여촌이 있기 때문에 도시는 성립한다 /

2) 수도권에서 본 지방창생

- 도쿄에서 본 지방창생 :
- 수도권 인구증가 지역의 거시적 구조 :
- 도쿄일극집중의 내막 :
- 국가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육아인가, 수입 확보인가

3) 의존 사회로서의 도시

- 도시는 의존 사회다
- 의존성을 더욱 높이는 선거와 세금 형태
- 성장은 의존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 : 일방적인 의존은 문제이지만 상호의존은 오히려 서로 지탱해 주어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다.

제4장 도시의 정의가 지방을 파괴한다

1) '지방소멸' 이후 4년의 경험

- 홋카이도 니세코정 (해외 자본의 난개발) : 니세코의 자연은 단지 돈을 위해 움직이는 업체들에게 이용될 뿐이다 / 그 강력한 힘을 억누르고 국토를 지키며 지속 가능한 개발로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일인데, 오히려 그런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지금의 국가 정책인 것 /
- 홋카이도 히가시카구라정(주민들의 행정 의존) :
- 야마카타현 이데정(지방관 종합전략의 수립) :
- 전국에서 진행되는 학교 통폐합
- '작은 거점'을 둘러싼 '오보'
- 사자 몸속의 벌레 같은 마을의 유지비용론
- '멸망의 미학'에 약한 일본인 : 안락사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
- 재해 피해자와는 관계 없는 부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망하고 경제는 남는다? 2) 도시의 정의에서 다양성의 공생으로 - 도시의 정의와 공동체의 정의 : - 도시의 정의 : 정치지상주의, 국가지상주의, 대중의 정의, -> 보편성, 객관성 중시, 효율성, 경제성 추구, 합리성 - 마을의 정의 : 자치, 분권 요청, 구체적 관계 중시, - 폐쇄형의 도시 논리가 문제다 : 선택과 집중, 경쟁과 도태 야말로 도쿄일극집중의 근본원인 - 다양성의 공생 : - 국민을 이끄는 정치 이전에 그 정치의 방향을 정하는 여론이 가진 가치가 위험한 것이다-
다음 모임은	11.8 오후 1:00 녹색페인트
적은 이	누룩

모임이름	녹색한 책임기 2회차		참석인원 (당원+비당원)	5(3+2)
만난 때	11.8. 13:00		만난 곳	녹색페인트
만난 이들	당원	순애, 숲정이, 누룩, 비당원(여일쌤, 정일쌤)		
	비당원	여일, 정일		
이끈 이(지기)	누룩	지원 / 참관		
나눈 이야기 - 함께 한 활동	<p>“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에콜로지와 민주주의에 관한 에세이) - 김종철 생태사상론집.</p> <p>세월호1년, 자본주의국가의 비극 을 중심으로 이야기 시작 * 추천제 민주주의를 무엇 때문에 이야기 하는가 -> 전문가주의, 시민합의회의(덴마크) + 대의민주주의(선거주의) + 행정관료주의 추천 민주주의의 유효한 조건은 무엇인가 예시: 배심원, 시민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를 소농사회와 연결지을 수 있는가 - 재난자본주의(재앙)/석유자본주의 - 유량이 아닌 저량적 사고가 필요하다 - 소농주의란 무엇인가 <p>사회, 체제, 관계를 먼저 고려하기보단 내 삶의 영위, 주체적 삶에 관한 개념이 아닐까/내 먹거리는 내가 생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기본소득 <p>발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솔루션을 추구하였다(가설들)→검증과 구체화 작업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철이라는 인물, 동아시아의 역사적 인격들이 골고루 들어있다 			

	- 속의민주주의 가능한 것인가
다음 모임은	12.8 오후 1:00 녹색페인트
적은 이	누룩